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자살충동

- 평일/주말 수면시간 효과에 대한 성별 분석

Sleep Duration and Suicidal Impulse of Korean Adolescents: Weekday/Weekend Sleep Duration Effects and Gender Difference

김경미*, 염유식**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Kyungmi Kim(ywomen@yonsei.ac.kr)*, Yoosik Youm(yoosik@yonsei.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분석했다.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일 수면시간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평일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남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1.9배 높았으며, 이 효과는 관련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평일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1.3배 높았지만, 이 효과는 스트레스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변했다. 한편, 주말 수면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등교부담이 없어 수면부족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에서 나타나는 평일과 주말 수면시간, 성별 집단에 따른 차이를 밝힘으로써 수면시간 연구에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 중심어 : | 평일 수면시간 | 주말 수면시간 | 자살충동 | 성별 차이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sleep duration on Korean adolescents' suicidal impulse. A gender-base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metho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eekday sleep du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male adolescents. Male adolescents who sleep less than seven hours on a weekday are likely to experience suicidal impulse by 1.9 times higher than the others. This effect remained significant even when other relevant variables were controlled. On the other hand, female adolescents who have less than seven hours of sleep on a weekday have about 1.3 times higher chances to experience suicidal impulse. However, this effect became insignificant when other variables such as stress were controlled. Meanwhile, weekend sleep duration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s. By demonstrating the different effects between weekday/weekend sleep duration and male/female adolescents, this study supports the claim that it is necessary to take a social approach in studying sleep duration.

■ keyword : | Sleep Duration | Suicidal Impulse | Weekday/Weekend | Gender Difference |

* 이 논문은 한국방정환재단과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3A2044496)

접수일자 : 2015년 10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5년 11월 13일

수정일자 : 2015년 11월 10일

교신저자 : 김경미, e-mail : ywomen@yonsei.ac.kr

I. 서론

청소년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자살은 최근 몇 년 동안 교통사고를 제치고, 청소년 사망원인 1위이다[1]. 2000년~2010년 10~24세 자살자 수가 OECD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한편, 한국은 이 기간 동안 47% 급증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 5명 중 1명이 자살생각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도 이러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2][3].

이처럼 청소년 자살은 심각한 상태이며, 자살생각 역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자살생각이 반드시 자살행위로 연결되진 않지만, 자살행위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4-6].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수면시간에 초점을 맞춘다. 수면시간은 생리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요인과 관련돼 있다[7-9]. 특히 청소년기는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성인보다 늦게 분비돼 취침시간이 지연되는 등 생체리듬이 변화하는 시기이며[10],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과 같은 사회적 요인도 수면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경우 취침시간이 늦어지는데 등교시간은 정해져 있고, 교육환경도 경쟁적이기 때문에 수면부족을 경험하기 쉽다[11][12]. 또한, 자살행위도 이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수면부족과 청소년 자살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들이 진행돼왔다[13][14].

수면은 활력을 회복시키는 수단이며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15]. 하지만, 수면시간과 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에서 진행돼 왔으며, 경쟁적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수면부족을 경험하는 한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심리적 접근과 사회적 접근으로 구분된다. 심리적 접근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수준의 내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춘다면[16], 사회적 접근은 가정 및 학교환경, 사회적 관계를 강조한다[6].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단면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가 개인 수준과 사회 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울감, 소외감,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모델과 가정환경, 학교환경, 사회적 관계 등을 다루는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6][17].

또한, ‘젠더 패러독스’로 불리는 현상에 주목하는 움직임도 발견된다. ‘젠더 패러독스’는 일반적으로 자살사망은 남자가 높지만,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는 여자가 높은 현상을 의미한다[18]. 다시 말해, ‘젠더 패러독스’는 자살사망이나 자살생각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 문화적으로 형성되는 젠더 차이와 관련돼 있음을 함축한다[18][19].

이러한 젠더 패러독스 현상은 자살 연구에서 성별 접근 전략이 필요한 측면을 보여준다. 또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 즉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등도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 변인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성별 특화적인 접근을 취할 필요가 있다[6][17][20].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수면시간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에서 여성의 평균 수면시간이 남성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으며[9], 청소년의 경우에도 여학생의 평일 수면시간이 남학생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수면시간의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젠더 형성과 사회 불평등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외모 치장에 드는 시간과 가사노동 부담 때문에 수면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14][21], 또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수면시간에 반영된다[7].

위에서 살펴본 논의는 자살생각 연구에 함축하는 바가 크다. 자살생각 연구는 개인 수준과 사회 환경을 복

위에서 살펴본 논의는 자살생각 연구에 함축하는 바가 크다. 자살생각 연구는 개인 수준과 사회 환경을 복

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젠더 패러독스 현상에서 엿볼 수 있듯, 연구대상을 성별로 구분해 분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2. 수면시간과 자살생각

청소년의 수면과 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외국에서 진행돼왔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성인의 수면과 자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그동안 불면증과 같은 수면장애가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지만[22], 수면시간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23].

외국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짧은 수면시간은 자살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11][13][24]. 예를 들면 하루 수면시간이 8시간 이하인 청소년이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은 우울감 등을 통제했을 때도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3배나 높았다[13].

또한, 수면시간은 자살생각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11][13][25][26]. 미국 청소년의 경우 취침시간이 밤 12시 이후인 집단의 자살생각이 10시 이전인 집단과 비교해 약 1.2배 높았다[25]. 또한, 미국 전국 자료를 사용한 연구에서도 짧은 수면시간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수면시간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성인의 경우 수면시간이 6시간 이하인 집단의 자살생각이 7시간 집단과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7][28], 청소년의 경우에도 수면시간이 5시간 미만인 집단의 자살생각 경험 가능성이 8시간 이상인 집단과 비교해 약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2]. 요컨대, 국내외에서 진행된 선행연구에 따르면 짧은 수면시간은 자살생각을 증가시켰다.

특히, 한국 청소년들은 경쟁적 교육환경 하에서 심각한 수면부족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선행연구 결과에 비춰볼 때 '위험신호'가 될 수 있다. 미국 수면재단(NSF)에 따르면 청소년의 경우 7시간 수면이 '적정'이고 8~10시간 수면이 권장되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적정시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면을 취하고 있다. 하루 수면시간이 7시간 이상인 비율은 미국 청소년이 46.7%인 한편, 한국 고등학생은 29.6%에 불과하다

[23]. 또한, 한국에서는 중학생의 53.9%, 고등학생은 73%가 자신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2].

하지만, 수면시간과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23]. 또한, 자살생각과 관련된 변인 통제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는데 선행연구는 인구학적 특성 및 우울감만 통제하고,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배경으로 개인 및 사회적 수준의 관련 변인을 복합적으로 통제한 후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함으로써 수면시간 효과가 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다.

- 연구문제 1. 청소년의 수면시간은 자살충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개인 및 사회적 변인을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가?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15년 3~4월 방정환재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제주도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표본은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지역 규모, 성별 등을 고려해 비례할당 방식으로 추출했다. 설문지를 우편발송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학급을 표집단위로 삼았기 때문에 지역 규모나 성별 비율이 실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할 때와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해 가중치를 산출해 적용했다. 자료이용에 관해서는 조사기관의 허락을 받았으며, 전체 유효표본 7,535명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 5,391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2. 변수구성 및 측정

2.1 종속변인

본 연구는 종속변인으로 자살충동 경험을 사용했다. 자살충동 변인은 “자살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나요?” 문항을 이용했으며, 이에 대한 응답을 가변수(있다=1) 처리했다.

2.2 독립변인

수면시간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했다. 수면시간 변인은 평일과 주말 수면시간으로 구성했다. 평일 수면시간은 “주중(학교 가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문항을 이용했으며, 적정 수면시간인 7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했다. 주말 수면시간은 “주말(학교 가지 않는 날)에 잠을 자는 시간은 몇 시간 인가요?” 문항을 이용했다. 주말에는 등교를 하지 않아 수면시간이 대체로 평일보다 길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9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했다.

2.3 통제변인

학교폭력 경험, 외로움 및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했다. 먼저, 학교폭력 변인은 최근 1년간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구성했다. 학교폭력의 예로 신체폭행, 금품갈취, 언어폭력,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이 제시됐으며, 이러한 유형의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을 기준으로 가변수(있다=1) 처리했다.

외로움 변인은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롭다”는 항목을 이용해 측정했다. 스트레스 변인은 부모, 학업, 외모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했다. 먼저, 부모 스트레스는 3개 항목-“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부모님과 대화가 안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이들 항목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간 신뢰도는 .887이다. 3개 항목의 평균 점수(1점~5점)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학업 스트레스는 4개 항목-“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간 신뢰도는 .845이다. 4개 항목의 평균 점수(1점~5점)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외모 스트레스는 4개 항목-“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멋있거나 예쁜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을 이용해 측정했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간 신뢰도는 .811이다. 4개 항목의 평균 점수(1점~5점)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변인은 아버지관계, 어머니관계, 친구관계로 구분해 구성했다. 아버지관계 변인은 4개 항목-“아버지는 나와 사이가 좋은 편이다”, “아버지는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버지와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나는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으로 측정했으며, 어머니관계도 위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했다. 항목은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항목간 신뢰도는 아버지관계가 .887, 어머니관계는 .871이다. 4개 항목의 평균 점수(1점~5점)를 사용했으며, 점수가 클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친구관계는 6개 항목-“나는 친구들에게 내 문제에 관해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부끄럽거나 어리석게 느껴진다”, “나는 내 친구들이 현재의 친구들이 아닌 다른 친구들이었으며 좋겠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예도 외로움을 느낀다”, “나는 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다”, “나는 속상해할 때 친구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준다”-을 사용했다.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다)로 구성돼 있으며, 앞의 5개 항목을 역산함

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 수준이 높아지도록 구성했다. 6개 항목의 평균 점수(1점~5점)를 사용했으며, 항목간 신뢰도는 .749이다.

또한, 교급, 계층, 학교성적, 거주지 규모, 음주 및 흡연경험도 통제변인으로 구성했다. 교급은 중학생(=1)을 기준으로 가변수 처리했다. 계층 변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우리 집의 생활형편이 어느 정도인 것 같나요?” 문항을 이용했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은 원래 6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서는 3단계-상, 중, 하-로 재구성했다. 학교성적 변인은 2014년 2학기 기말 기준으로 자신의 성적을 묻는 문항을 이용해 3개 범주로 구분했으며, 대도시 변인은 거주지 규모를 묻는 문항을 이용해 가변수(대도시=1) 처리했다.

한편, 음주경험은 “지금까지 두 번 이상 음주를 한 적이 있나요?” 문항을 이용해 가변수(있다=1)로 구성했으며, 흡연경험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 흡연을 하나요?” 문항을 이용해 이분 범주화(있다=1) 했다.

3. 분석방법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등을 실시했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버전 21.0)를 사용했다.

또한, 위에서 설정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으로 구분해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교폭력 경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을 각각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방식으로 4개 모형을 구성했다. 즉, 모형 1에서는 수면시간 변인만 포함시켜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교폭력 경험 변인을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모형 3과 모형 4는 각각 외로움, 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을 추가로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 효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나타낸다.

IV.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교급별 비율에서는 고등학생이 성별에 관계없이 중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생 비율이 51.9%로 중학생(48.1%)보다 높았고, 남학생도 고등학생 비율이 51.2%로 다소 높았다. 학교 성적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중간 범주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계층인식에서는 자신이 중층에 속한다는 응답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70%를 넘는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도시 거주 비율은 남학생이 47.7%로 여학생(42.3%)보다 높았다. 흡연 및 음주경험도 남학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흡연경험은 남학생이 8.0%로 여학생(1.8%)보다 4배 이상 높았고, 음주경험도 남학생이 26.2%로 여학생(14.4%)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학교폭력 경험에서도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경우 남학생이 3.1%로 여학생(0.9%)에 비해 3배 이상 높았으며, 피해 경험 비율도 남학생이 3.1%로 여학생(2.4%)보다 높았다.

한편, 외로움을 느끼는 수준에서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이 2.35점으로 남학생(2.07점)보다 높았다.

스트레스 변인 중에서는 학업과 외모 유형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차를 보였다. 학업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3.13점으로 남학생(2.83점)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았고, 외모 스트레스도 여학생이 2.52점으로 남학생(2점)에 비해 높았다. 한편, 부모 스트레스 수준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수준은 여학생이 2.54점으로 남학생(2.51점)에 비해 높았지만,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관계 변인을 살펴보면 아버지관계와 어머니관계만 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은 남학생이 3.89점으로 여학생(3.74점)에 비해 높았으며, 어머니와의 관계수준은 여학생이 4.27점으로 남학생(4.21점)에 비해 높았다. 한편, 친구관계 수준에서는 성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면시간도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평일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인 비율에서는 남학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여학생(2534명)		남학생(2857명)		비고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교급	중학생	1220	48.1	1394	48.8	
	고등학생	1314	51.9	1462	51.2	
학교성적	상	555	25.7	645	25.9	
	중	1145	53.0	1247	50.0	
	하	460	21.3	600	24.1	
	상	294	11.7	484	17.2	
계층인식	중	1987	79.0	2078	73.8	
	하	234	9.3	253	9.0	
대도시	거주	1071	42.3	1364	47.7	
휴연경험	있음	46	1.8	228	8.0	
음주경험	있음	363	14.4	743	26.2	
학교폭력	피해경험	62	2.4	88	3.1	
	가해경험	24	0.9	88	3.1	
외로움+		2.35±1.14		2.07±1.15		t= 9.063***
스트레스+	부모	2.54±1.01		2.51±1.11		t= 1.083
	학업	3.13±1.04		2.83±1.10		t= 9.956***
	외모	2.52±0.97		2.00±0.88		t= 20.155***
사회관계+	어머니관계	4.27±0.81		4.21±0.84		t= 2.794**
	아버지관계	3.74±0.99		3.89±0.99		t= -5.359***
	친구관계	4.06±0.64		4.03±0.62		t= 1.444
수면시간	평일(≥7시간)	1151	46.0	1673	60.0	$\chi^2 = 104.896^{***}$
	주말(≥9시간)	1477	59.0	1523	54.0	$\chi^2 = 13.469^{***}$
자살충동	경험	695	27.5	476	16.7	$\chi^2 = 91.300^{***}$

주 : * p<.05, ** p<.01, *** p<.001
+ 평균±표준편차

생이 60%로 여학생(46%)에 비해 크게 높은 한편 주말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이상인 비율은 여학생이 59%로, 남학생(54%)에 비해 높았다.

또한, 자살충동 경험 비율에서도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자살충동을 경험한 비율은 여학생이 27.5%로 남학생(16.7%)과 비교해 10% 이상 높았다.

2. 남학생 : 수면시간과 자살충동

위에서 설정한 연구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집단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모형 1은 독립변인인 수면시간만 포함시켜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교폭력 변인을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의 영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모형 3은 외로움과 스트레스 변인, 모형 4는 사회적 관계 변인을 추가로 포함시켜 수면시간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나타낸다.

남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2]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평일 수면시간은 부(-) 방향으로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평일 수면시간이 7시간 미만인 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1.9배 높았다<모형 1. 참조>. 이러한 수면시간 효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폭력 경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모형 4. 참조>. 한편 주말 수면시간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교급, 학교 성적, 계층인식, 거주지 규모, 휴연경험은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음주경험만이 정(+)적 방향으로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모형 2. 참조>. 구체적으로,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음주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약 1.7배 높았으며, 이러한 효과는 모형 3과 모형 4에서 각각 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했다.

표 2. 남학생 :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평일수면(≥ 7시간)	-.643***	.526	-.540***	.583	-.420*	.657	-.383*	.682
주말수면(≥ 9시간)	-.027	.973	-.086	.918	-.063	.939	-.052	.950
교급(중학생-1)			.003	1.003	.300	1.350	.322	1.380
학교성적			-.136	.873	-.036	.965	-.017	.983
계층인식			-.136	.873	-.022	.979	.032	1.033
대도시 거주			.086	1.090	.056	1.058	.078	1.081
음주경험			.539***	1.714	.383*	1.467	.367*	1.443
흡연경험			.090	1.095	.262	1.300	.300	1.350
학교폭력 피해경험			.854*	2.350	.316	1.372	.317	1.374
학교폭력 가해경험			.306	1.358	.215	1.239	.232	1.261
외로움					.363***	1.438	.342***	1.408
부모 스트레스					.574***	1.776	.490***	1.633
학업 스트레스					.178*	1.195	.191*	1.211
외모 스트레스					.021	1.021	.009	1.009
아버지 관계							-.181*	.835
어머니 관계							-.098	.907
친구 관계							-.046	.955
상수항	-1.307***	.271	-1.031**	.357	-4.649***	.010	-3.315***	.036
-2Log 우도	1748.783		1715.655		1508.211		1496.800	
모델 Chi-square(x ²)	28.347***		61.475***		268.919***		280.330***	
Nagelkerke R ²	.024		.051		.213		.221	
사례수(명)	2801		2419		2270		2029	

주 : * p<.05, ** p<.01, *** p<.001
 종속변인 : 자살충동

학교폭력 경험 변인을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가해 경험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한편 피해경험만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모형 2. 참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2.4배 높았다. 하지만,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효과는 모형 3과 모형 4에서 각각 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변했다. 남학생 집단에서는 학교폭력 경험보다는 스트레스 및 사회적 관계 변인의 영향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 변인은 자살충동에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모형 4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스트레스 변인 중에서는 부모와 학업 유형이 자살충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늘어날 때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할 때도 자살충동을 경

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효과는 모형 4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했다. 한편 외모 스트레스는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관계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관계만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효과를 나타냈다.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감소했다. 어머니관계와 친구관계 변인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여학생 : 수면시간과 자살충동

여학생을 대상으로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1은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모형 2는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교폭력 경험변인을 통제했을 때 수면시간의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며, 모형 3과 모형 4는 각각 외로움과 스트레스 변인, 사회적 관계 변인을 포함시켜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나타낸다.

표 3. 여학생 :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계수(B)	Exp(B)
평일수면(≥ 7시간)	-.290***	.748	-.318*	.727	-.033	.968	-.017	.983
주말수면(≥ 9시간)	.033	1.034	-.020	.980	-.017	.983	-.003	.997
교급(중학생-1)			.150	1.162	.220	1.246	.236	1.266
학교성적			-.108	.898	-.036	.964	-.023	.978
계층인식			-.308*	.735	-.011	.989	.081	1.085
대도시 거주			-.152	.859	-.118	.889	-.116	.891
음주경험			.805***	2.236	.563**	1.756	.559**	1.748
흡연경험			.589	1.802	.364	1.439	.315	1.370
학교폭력 피해경험			1.383***	3.986	1.324***	3.758	1.377***	3.963
학교폭력 가해경험			.913	2.491	1.041	2.833	1.139	3.123
외로움					.454***	1.575	.419***	1.520
부모 스트레스					.392***	1.480	.294***	1.342
학업 스트레스					.366***	1.441	.380***	1.463
외모 스트레스					.162*	1.175	.150*	1.162
아버지 관계							-.152*	.859
어머니 관계							-.185*	.831
친구 관계							-.025	.976
상수항	-.827***	.437	-.140	.870	-4.819***	.008	-3.296***	.037
-2Log 우도	2185.004		2097.739		1807.429		1791.642	
모델 Chi-square(x ²)	7.224*		94.488***		384.799***		400.586***	
Nagelkerke R ²	.006		.072		.271		.281	
사례수(명)	2484		2108		2024		1842	

주 : * p<.05, ** p<.01, *** p<.001
 종속변인 : 자살충동

[표 3]은 여학생의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평일 수면시간은 자살충동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평일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 미만인 여학생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1.3배 높았다<모형 1 참조>. 이러한 수면시간의 효과는 모형 2에서 학교폭력 경험 등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했지만, 모형 3과 모형 4에서 각각 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 관계 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변했다. 한편 주말 수면시간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계층인식이 부의 방향으로, 음주경험은 정의 방향으로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모형 2 참조>. 계층인식이 한 단계 낮아질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지만, 이 효과는 모형 3과 모형 4에서 각각 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변했다. 한편, 음주경험이 있는 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은 음주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약 2.2배 높았으며, 음주경험 변인의 효과는 모형 3과 모형 4에서도

유의했다.

학교폭력 변인 중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있는 여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무려 약 4배 높게 나타났다<모형2 참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스트레스 변인과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통제한 모형 3과 모형 4에서도 유의했다. 한편, 학교폭력 가해경험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외로움에 대한 인식은 자살충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증가했으며<모형 3 참조>, 이러한 효과는 모형 4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했다.

다음으로, 스트레스 변인을 살펴보면 부모, 학업뿐만 아니라 외모 스트레스도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부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학업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낄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도 증가했다<모형

3. 참조>. 또한, 여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 집단과 달리, 자신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스트레스 변인의 효과는 모형 4에서 사회적 관계 변인을 통제했을 때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관계뿐 아니라 어머니관계도 부 방향으로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아버지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감소했으며, 어머니와의 관계 수준이 높을 때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한편, 친구관계 변인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에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여학생과 남학생 집단으로 구분해 평일 및 주말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면시간 효과가 개인 및 사회적 변인을 단계적으로 통제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평일 수면시간은 남학생 집단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평일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 미만인 남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1.9배 높았다. 이 효과는 자살충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즉 학교폭력 경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한편, 여학생 집단에서는 평일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평일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7시간 미만인 여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7시간 이상인 경우보다 약 1.3배 높았지만, 이 효과는 모형 3과 모형 4에서 각각 스트레스 및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추가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변했다. 여학생의 경우 수면시간보다는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 변인이 자살충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평일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는 처음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통제변인이 단계별로 증가함에 따라 성별로 차이를 보였다.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 변인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성별 집단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가 성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주말 수면시간은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 모두에서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남학생의 경우 주말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9시간 미만인 학생이 자살충동을 경험할 가능성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약 1.03배 높았지만, 이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여학생 집단에서도 주말 수면시간은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 결과는 한국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평일의 경우 더 짧게, 주말에는 더 길게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14]. 한국 청소년들은 평일에 부족했던 수면을 보충하기 위해 주말에 더 많은 수면을 취하는 경향이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주말에는 수면부족을 덜 경험하기 때문에 주말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닌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에 대한 성별 분석을 시도한 점이다. 수면시간과 자살충동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의학계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성별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에서 나타나는 성차를 밝힘으로써 수면시간 연구에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측면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수면시간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해 분석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는 평일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말 수면시간은 성별에 관계없이 자살충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는 청소년기에 수면 호르몬 분비가 지연돼 취침시간이 늦어지는 생리적 특성과 이른 등교시간, 경쟁적 교육환경과 같은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정책적 측면에서 함의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 수면시간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청소년기 수면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평일에도 청소년들이 적정 시간(7시간) 이상의 수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변인까지 통제변인으로 고려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인구학적 요인이나 심리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고려했지만, 본 연구는 그 범위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대 적용했다. 평일 수면시간의 효과가 여학생 집단에서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을 통제했을 때 유의하지 않게 변한 점에서 엇볼 수 있듯, 수면시간이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련 변인에 대한 통제가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보기 힘든 전국 규모의 자료를 사용한 점도 강조하고 싶다.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 일반화 문제를 드러냈지만, 본 연구는 대표성이 높은 전국 자료를 사용했다.

끝으로,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평일 수면시간의 자살충동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점을 강조했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학생 집단에서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 변인의 자살충동 효과가 수면시간의 영향을 유의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강하게 나타난 점을 지적했지만, 스트레스나 사회적 관계 변인의 성별 차이가 젠더 형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 즉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사회적 관계 변인 등이 주관적인 자기 기입식 방법으로 측정됐기 때문에 응답편의(response bias)가 나타날 수 있는 한계도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앞으로, 청소년의 수면시간과 자살충동에 대한 연구가 탐색적 수준을 넘어 진행되고, 그 사회적 함의에 주목하는 다양한 논의로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여성가족부, 청소년 통계, 2015.
- [2] 김경준, 김희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V: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3]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2015년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구축: OECD 국제비교 연구보고서, 2015.
- [4] 박재산, 문재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사회과학, 제27권, pp.105-131, 2010.
- [5] Y. S. Cho and K. N. Lee, “Effects of Adolescent’s Alienation, Depression, Family Environment and School Maladjustment on Suicidal Ideation,”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48, No.8, pp.27-37, 2010.
- [6] 김현주, 노자은, “부모, 친구, 교사, 지역사회 지지와 청소년의 자살충동간 인과관계 분석: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4권, 제2호, pp.135-162, 2011.
- [7] S. Arber, M. Bote, and R. Meadows, “Gender and socio-economic patterning of self-reported sleep problems in Britain,” Social Science & Medicine, Vol.68, No.2, pp.281-289, 2009.
- [8] J. Maslowsky and E. J. Ozer, “Developmental trends in sleep duration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Evidence from a national United States sampl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Vol.54, No.6, pp.691-697, 2014.
- [9] 은기수, 차승은, “한국의 일상생활에서 남녀의 수면시간과 관련 요인 탐색,” 통계연구, 제15권, 제2호, pp.82-103, 2010.
- [10] D. J. Taylor, O. G. Jenni, C. Acebo, and M. A. Carskadon, “Sleep tendency during extended wakefulness: insights into adolescent sleep regul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Sleep Research, Vol.14, No.3, pp.239-244, 2005.

- [11] C. T. Fitzgerald, E. Messias, and D. J. Buysse, "Teen sleep and suicidality: results from the youth risk behavior surveys of 2007 and 2009," *Journal of clinical sleep medicine*, Vol.7, No.4, pp.351-356, 2011.
- [12] 박현주, "우리나라 청소년의 수면시간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학교보건학회지*, 제28권, 제1호, pp.1-9, 2015.
- [13] X, Liu, "Sleep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Sleep*, Vol.27, No.7, pp.1351-1358, 2004.
- [14] Y. J. Lee, S. J. Cho, I. H. , Cho, and S. J. Kim, "Insufficient sleep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leep*, Vol.35, No.4, pp.455-460, 2012.
- [15] 서한나, "초기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에 관한 종단 연구: 스트레스와 우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0권, 제3호, pp.629-646, 2011.
- [16] R. F. Baumeister,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Vol.97, No.1, pp.90-113, 1990.
- [17] 장영애, 이영자,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제12권, 제4호, pp.133-144, 2014.
- [18] D. L. Schrijvers, J. Bollen, and B. G. Sabbe, "The gender paradox in suicidal behavior and its impact on the suicidal proces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38, No.1, pp.19-26, 2012.
- [19] K. Hunt, H. Sweeting, M. Keoghan, and S. Platt, "Sex, gender role orientation, gender role attitudes and suicidal thoughts in three generation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Vol.41, No.8, pp.641-647, 2006.
- [20] 박은옥, "한국 성인의 성별 자살생각 관련 요인 분석," *농촌의학·지역보건*, 제39권, 제3호, pp.161-175, 2014.
- [21] M. Basner, K. M. Fomberstein, F. M. Razavi, S. Banks, J. H. William, R. R. Rosa, and D. F. Dinges, "American time use survey: sleep time and its relationship to waking activities," *Sleep*, Vol.30, No.9, pp.1085-1095, 2007.
- [22] R. D. Goodwin and A. Marusic, "Association between short sleep and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 among adults in the general population," *Sleep*, Vol.31, No.8, pp.1097-1101, 2008.
- [23] J. H. Jeong, Y. E. Jang, H. W. Lee, H. B. Shim, and J. S. Choi, "Sleep and Suicidal Risk Factors in Korean High School Students,"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Vol.20, No.1, pp.22-30, 2013.
- [24] M. M. Wong, K. J. Brower, and R. A. Zucker, "Sleep problems, suicidal ideation, and self-harm behaviors in adolesc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Vol.45, No.4, pp.505-511, 2011.
- [25] J. E. Gangwisch, L. A. Babiss, D. Malaspina, J. B. Turner, G. K. Zammit, and K. Posner, "Earlier parental set bedtimes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Sleep*, Vol.33, No.1, pp.97-106, 2010.
- [26] M. Sarchiapone, L. Mandelli, V. Carli, and D. Wasserman, "Hours of sleep in adolescents and its association with anxiety, emotional concerns, and suicidal ideation," *Sleep Medicine*, Vol.15, No.2, pp.248-254, 2014.
- [27] Y. J. Lee, S. J. Kim, I. H. Cho, J. H. Kim, S. M. Bae, S. H. Koh, and S. J. Cho,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leep duration and suicidal idea in an urban area of South Korea," *Sleep Medicine and Psychophysiology*, Vol.16, No.2, pp.85-90, 2009.
- [28] 김미은, *우리나라 성인의 수면시간과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와의 관련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4.

- [29] 라진숙, 조윤희, “청소년의 비만도, 우울, 자살생각에 대한 스크린 기반 좌식활동과 수면시간의 수준별 결합효과,” 한국보건간호학회지, 제28권, 제2호, pp.241-257, 2014.

저 자 소 개

김 경 미(Kyungmi Kim)

정회원



- 1991년 2월 :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학사)
 - 1993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석사)
 - 2004년 8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 <관심분야> : 정보·인터넷, 시민참여, 여성 및 청소년

염 유 식(Yoosik Youm)

정회원



- 1987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학사)
 - 1990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석사)
 - 2000년 8월 :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학과(박사)
 - 2005년 8월 : 미국 시카고대학 사회학과 조교수
 - 2005년 9월 ~ 현재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의료사회, 네트워크, 노인 및 청소년